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파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의 후속 조치로서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은 3월 9일까지 단 한 달로, 시간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위 구성 의결 이후, 양당 간사는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 공청회, 법안소위원회 등 구체적인 일정을 이미 합의하였으며, 해당 일정은 특위 위원장에게도 보고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익 중심의 기구이며, 어떠한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를 파행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힘은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은 그 책임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가 즉각 정상화되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